



추석선물, 교환·환불하세요

백화점·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환불제 운용 영수증 없어도 타 제품·상품권 교환 가능

정성이 담긴 추석 선물이지만 마음에 안 드는 선물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주요 유통업체들은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고객이 배송받은 추석 선물을 다른 제품으로 바꿔주거나 상품권으로 교환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영수증이 없을 경우 운송장 번호로 신선식품을 제외한 가공식품과 생활용품 등에 한해 다른 상품으로 교환해준다.

이마트는 원칙적으로 구매 1개월 이내 정상품에 한해 영수증을 가진 고객에게 교환과 환불을 해주고 있다. 영수증이 없다면 포인트카드나 신용카드를 이용한 구매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명절 선물세트 특성상 어느 점포에서 구매했는지와 관계없이 15일까지는 영수증 없는 상품도 교환이 가능하다.

상품은 정상품이어야 하고, 수량은 최대 2개까지로 한정되며 환불은 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다. 롯데백화점은 영수증이 있는 고객에게만 교환·환불을 해주고 있다.

다만, 선물 받는 사람이 영수증까지 함께 받는 경우가 사실상 없는 점을 고려해 배송 전 주소확인 과정에서 미리 요청하면 선물 대신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공지하고 있다.

롯데마트의 경우 영수증이 있으면 이달 21일까지 교환과 환불을 받을 수 있고, 영수증이 없다면 15일까지 교환을 받거나 상품권으로 환불 받을 수 있다. 단, 신선식품은 제외되며 영수증

없는 교환은 이마트와 마천가지로 1인당 2개까지만 가능하다.

이와 달리 홈플러스는 상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만 구매한 매장에서만 같은 종류의 상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

신선식품 선물세트는 구매 후 7일 이내, 다른 선물세트는 한 달 이내에 교환·환불이 가능하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상품을 교환·환불받으려고 할 때는 원칙적으로 영수증이 있어야 한다”며 “다만, 명절 선물 특성상 영수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비슷한 선물을 여러 곳에서 받는 고객들도 있어 배송 전에 교환 규정을 안내하는 등 고객 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10개 家電에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적용

전기장판·헤어드라이어 등...미래부 ‘전자파 대책’ 발표

전기장판 등 일상 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가전기기도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전자파 인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미래부는 우선 전기장판·헤어드라이어·온수매트·전자레인지 등 많은 국민이 사용하는 가전기기 10여종을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적용 대상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들 기기는 과거 실태조사에서 현재의 인체보호기준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전자파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된 것들이다. 현재는 휴대전화·노트북·개인휴대단말기(PDA) 등 일부 기기에만 전자파 가이드라인이 부여돼 있다.

미래부는 다만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규제 도입에 따른 시장 영향을 평가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기업 의견을 수렴한 뒤 구체적인 적용 품목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또 전자파 취약계층인 영유아·어린이 등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등의 ‘전자파 인체안전성평가’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2017년까지 고출력 전자파에 장시간 노출되는 직업인 보호를 위한 지침을 수립할 방침이다.

기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자파 노출량 평가 기법을 개발하고 사업주들이 이를 자발적으로 준수·관리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연합뉴스

“사고 나도 에어백 안터져”

최근 5년간 오작동 피해 신고 1100건...미작동 78% ‘최다’

최근 5년간 자동차 에어백 관련 오작동으로 인한 신고가 1100건을 넘는 등 에어백 결함 피해가 늘고 있지만 리콜 실적은 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우현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0일 한국소비자원과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에어백 관련 오작동 신고 건수는 모두 925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에어백 미작동이 725건(78.4%)으로 가장 많았으며 에어백 자동작동 51건(5.5%), 에어백 경고등 점등 45건(4.9%), 기타 104건(11.2%) 순이었다.

또 국내 운행하는 자동차의 에어백 결함은 현대자동차가 318건(34.4%)으로 가장 많았고 기아자동차 194건(21%), 르노삼성자동차 113건(12.2%), 한국지엠 112건(12.1%), 쌍용자동차 57건(6.2%), 수입차 92건(9.9%), 불명 39건(4.2%)이었다.

이와 함께 같은 기간 교통안전공단에 접수된 에어백 오작동 결함 접수 건수는 216건으로 집계돼 두 기관에 신고된 에어백 오작동 건수는 1136건에 달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전체적으로 자동차 에어백 결함 관련 리콜 건수가 1050만대에 이르고 있지만 같은 기간 국내 제조사의 에어백 결함으로 인한 리콜은 25만여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제작결함 조사

■ 에어백 관련 접수유형별 현황 (’10~’14. 6월말 현재)

| 불만 유형 | 건수(건) | 비율(%) |
|------------|-------|-------|
| 에어백 미작동 | 725 | 78.4 |
| 에어백 자동작동 | 51 | 5.5 |
| 에어백 경고등 점등 | 45 | 4.9 |
| 기타 | 104 | 11.2 |
| 합계 | 925 | 100.0 |

(자료:한국소비자원)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에어백 결함 피해가 늘고 있지만 리콜 실적은 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휴대폰 분실보험 믿었다간 ‘바가지’

구입비 보다 보험료가 더 많아...권익위, 소비자 부담금 안내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휴대전화 분실보험에서 전화 분실시 소비자 부담해야 할 비용을 개인별로 명확히 알리도록 미래창조과학부에 권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현재 각 이동통신사에서 부가서비스 형태로 판매하는 휴대전화 분실보험은 소비자에게 자기부담금을 알려주지 않아 새 휴대전화 구입비보다 보험료가 더 많이 나오는 사례가 잦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보험가입 신청서에 통신사별로 복잡하게 나뉜 분실보험료와 자기부담금을 개인 맞춤

형으로 제공하고, 분실 보상이 지연될 때에는 사유와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실제로 친부모를 부양했다면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여부와 상관없이 ‘부양가족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부친의 분처에게로 호적이 올라있어 30년간 생모를 부양하고도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연금 지급을 거절당한 민원인의 이의 제기 등에 대해 권익위가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하도록 국민연금공단에 시정 권고를 내린 것이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독자서비스국 062.220-0551

| | | | | | | | | | | | |
|---------------|--|---------------|--|--------------------|--|-------------------|--|--------------|--|---------------------|---|
| 토산철학원 | 북구 두암동 837-19 두암에덴병원정문옆 이름, 감정,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진로상담 대표 이태연 ☎010-4106-5055 | 아담카페식당 | 동구천변로 405-10 천변지리산주유소에서콜박스쪽 오리로스, 오리불고기 삼겹살, 목살, 주물럭 대표 김성훈 ☎062)224-0102 | 두걸음직업소개소 | 북구 두암동 824-2번지청사거리부근 근로자 수시모집 (현장근로자, 여성근로자) 대표 조창욱 ☎062)263-3862 | 광남기업 | 북구 두암동 849-26 두암시장이남 사시, 유리 조립식판넬 대표 이경규 ☎062)263-0036 | | | | |
| 등촌 | 동구 충장로1가 4번지 사브사브전문점 대표 김복현 ☎062)227-7734 | 독임이아구짬 | 동구 금남로3가 13-4 (제일은행뒷골목) 아구짬, 백반, 낙지백숙 청국장, 전통웰빙식품 대표 홍안수 ☎062)233-1919 | 우먼로드 | 중흥3동 286-36번지 (동부시장이남중흥3동사무소아래) 혼수전문, 이발, 커트, 전문매장 ☎062)524-8737 | 고전방 | 동구 공동 34-4번지(중앙초등학교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062)224-4869 | 이가회관 | 동구 금남로2가 충장동사무소뒷길 백반, 생태탕, 대구탕, 아구탕 낙지볶음, 각종생선조림 대표 이복례 ☎062)224-1541 | | |
| TV스토리 | 신안동 481-38번지 소형에서대형까지최고의품질 검품없는가격특가판매50%세일1년무상A/S ☎010)5540-4568 | 동양철학원 | 동구 불로동 11-2(평화식당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함 ☎062)224-7687 | 강황(울금)국밥 | 동구 예술의길 19-7 머리고기국밥, 순대국밥, 새끼국밥 임흥순대, 곱창전골 대표 장수화 ☎062)233-8778~9 | T&H양복점 | 동구 불로동121번지 (평화식당옆) 맞춤정장 맞춤셔츠 ☎062)233-0506 | 커피홀릭 | 동구 충장로 3가 11번지 이포유정문건너편2층 직접짜아신선한커피 대표 김현오 ☎062)229-0230 | | |
| 신신예술의집 | 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기념품 전문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 | 우리밀빵 | 동구 금남지하상가 E동51호 (분수대옆터부근) 공정무역, 유기농커피, 사회적기업 대표 박연옥 ☎062)222-1151 | 오리백년(두암직영점) | 북구 두암동 에덴병원건너편 오리한방백숙, 오리생고기, 주물럭 오리웃닭, 오리장어탕 ☎062)401-5253 | 미정 | 동구 금남로 2가 (구)동구청뒤 (옛날구미항) 계절생선회, 일식전문 대표 김용범 ☎062)236-3177 | 낙지한마당 | 동구 대의동 69-3 (동부경찰서앞) 연포탕, 낙지볶음 낙지비빔밥, 산낙지 ☎062)225-117 | 세정아울렛무크(상설점) | 서구 치평동 1326 세정아울렛 2층 258호 10~20% 추가할인(일부품목제외) 디자이너 및 제품품질향상, 사은품증정 ☎062)370-9258 |